

May 26 전혀 새로운 공동체

• 사도행전 2:42-47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행 2:47). 단지 사람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했을까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변화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삶,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모습,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함, 형제자매 된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진실됨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송했습니다(행 2:47). 오늘날 꺾일 대로 꺾인 교회의 위신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건물이나 재정, 인원이나 유력자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기까지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았습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 ①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② 예수님의 사명과 얼마만큼 닮아 있습니까?